

## [ 오피니언 ]

## 기자하 칼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골은 아니다. 타고난 기질은 도리어 매우 유순하고 작했다. 오죽하면 어릴 적 별명이 '율법이', '젤리', '정계맹개', '순동이' 따위였겠는가. 그런데 세상은 일제 말 태평양 전쟁, 해방, 6·25 전쟁, 그리고 긴긴 분단이었다. 그러나 그 북새통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내 '며저리'였다.

내가 며저리에서 저 유명한 반골 김지하로 변한 것은 대학생 때다. 대학생 때 굴욕적 한일회화 반대운동이 있었고 숨어다

니던 내가 피신처에서 들은 피투성이 소식 때문이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라는 권력기관이 내 부모님을 잡아다니 숨은 곳을 대라고 마구 고문해서 내 아버지가 반병신이 되어 일조차 못하게 된 사건을 들은 때부터였다.

그때 나는 수유리 근처에 숨어 있었는데 새벽녘 산에 올라 긴간 시간 끼오르는 태양을 향해 눈물로 맹세했다. 이 세상에서 일체의 압제와 거짓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지금도 이 파이린 맹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듯하다.

지금 세상에선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황석영 변절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3기 동시 발사, 세상이 떠들썩하게 봉하마을 노씨 상가로 조문행렬이 이어지는 것, 독감, 죽엽사 인정.

한동안 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듯, 사

## 나의 이상한 취미

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두 개의 명제 '생명과 평화'는 눈 씻고 봐도, 그 어디에도 자취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더욱이 자살한 사람 빈소에 촛불이 켜지고 있다. 자살이라는 이름의 비겁한 생명포기에도 촛불인가! 그렇다면, 그 촛불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어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대학신문기자의 전화였는데 최근 대학생들이 나의 이른바 저항시 중 그 대표적인 '타는 목마름으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거였다.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이 전화 한 통으로 인터뷰는 이미 마친 것이니 세 개의 아

이템으로 회견문을 정리한다면 정리해보라. 첫째, 내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타는 목마름' 따위 호랑이 담배 먹던 것 말고 최근의 촛불 시, '못난 시설'을 읽으라. 둘째, 촛불, 횃불, 숯불을 비교 비판 공부하라. 자기 시대의 역사는 자기가 공부해야 한다. 진짜 멘토는 자기 세대의 삶 안에 있다. 셋째, 아시안 네오·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우선 한자 삼백자 정도부터 공부해라. 한자 모르면 고전에 접근할 수가 없고 동양고전 모르면 삼류지식인밖에 안 된다는 듯, 모르겠다. 그 대학신문기자가 내 말뜻을 전혀 알아들은 것 같지 않다.

전화통에서 내 공부방에 돌아와 앉았을

칠저히 마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7일간의 국민장, 비극적 승배 열에 의한 명백한 부파와 생명포기라는 비겁성의 은폐, 핵실험과 3개의 미사일 발사 따위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기괴한 시중의 유행어인 '진보의 삶 길'이란 말이 황석영 변절 시비로 확보될 것인가?"

이를 전 나는 경북 안동시에서 '현대에도 유학은 유효한가?'라는 강연을 하는 가운데 과거 왕조시대의 자연관인 '오역(五逆), 오사(五事), 황극(皇極)'의 경우를 들어 오늘날에도 유학이 유효하려면 오늘의 오역사건이 4대강 개발정책을 정면 반대해야한다고 못박고 나서 이어 책석을 보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안동시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비슷한 일이다. 그리 다르지 않다. 전화에서 대학신문기자의 목소리가 나의 제안 '촛불, 횃불, 숯불을 엄격히 비교·비판해라. 한자공부해라. 진짜 촛불을 다시 켜는 놓난 시들을 읽으라'란 말을 듣고 인사말도 없이 순간간에 사라져버린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다.

이것이 나의 이상한 취미일 뿐일까?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옛 반글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 고

## 우 제길



## 신삼식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 걱정이 앞선 사람들이 있다.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환자분들은 특히 곤혹스럽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징검피부가 좀 더 태닝되면서 하얀 부분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백반증은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후천적으로 파괴되어지면서 피부에 다양한 크기, 모양의 백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간혹 거거나 끄적이거나 짙어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나 얼굴이나 팔, 다리 같은 노출 부위에 생기면 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가시오가

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시다면 보면 완치가 될 수 있으며 색소가 많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평소 주의사항은 자외선 차단제이다. 병원부와 주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빌라서 햇빛에 유해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정상 피부가 더 검게 타는 것을 막아서 백반증 부위가 눈에 잘 띠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외형적으로 비슷한 색을 띠도록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가시오가

수년 전 미국의 뉴멕시코 주 산타페를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에 접한 도시와 마을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기억 한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강하지 않으면서 차분히 내려앉은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자연을 닮은 황토색의 집들이 주변의 산야와 동색을 이루면서 태양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순길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이름다움을 자아내는 절경이었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의 조합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낸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간과한 채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도로, 혹은 교량들이 오히려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은 내세울만한 구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그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선(線)과 색채, 그리고 여유로운 여백의 문제에 있다. 이상의 요소들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우후죽순의 형세로 세워져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숨 쉬는' 환경미술을 꿈꾸며

다. 우리가 흔히 접해 온 환경미술도 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미술은 미술가의 관점법위를 의미 그대로 미술 영역 그 이상의 범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동안 미술을 맥락으로 주변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단체로 활동들이 있었다. 자연적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때, 자연 속에 건축물 내지는 구조물이 세워졌다면 그 장소의 분위기에 얼마나 부합하게 설치되었느냐의 문제, 그리고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던져주는지에 문제는 환경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환경의 특성을 살린 환경조성을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며, '자랑할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사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갖은 힘을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자연에 대한 보답은 개발이나 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아끼며 놓아두는 것이다. 자연, 그리고 환경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담은 미술 전람회나 환경미술 프로젝트가 종종 추진되어 왔다. 일례로 환경을 테마로 한 전시가 현재 상록전시관에서 진행 중이다. 자연 훼손에 대한 우리의 미안함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소중한 지구, 지켜줘 할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명의 이기심, 혹은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이즈음 사뭇 의미 있는 전시이다.

여백 없는 단답한 도시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찾을 수 있는 '공원 도시'를 꿈꾼다. 도시를 위한 도시가 아닌 사람과 환경이 한데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도시환경, 우리가 꿈꾸는 현재이자 미래일 것이다.

〈우제길 미술관 관장〉

## 흰색 얼룩점 '백반증' 치료 이렇게

면 미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한군데에 작은 생기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개의 흰 병변이 대침적으로 퍼지기도 한다. 텔의 색소가 없어져 흰털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 몸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꿈치 같이 빠가 뛰어나온 부위, 얼굴, 유두 부위에 발생하며, 입술 같은 접막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상처를 자주 받는 부위에 백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갑상선 기능 이상, 악성 빙대, 당뇨병, 일부 염증성 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백반증이 생기는지 정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다. 10~30세의 젊은 층에서 잘 생기고, 약 1/3에서는 가족 중에 백반증이 같이 있어 어느 정도 유전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전염병은 아니다.

아직까지 백반증을 단기간에 회복시

피, 상황버섯, 홍삼 등은 증가된 면역력이 멀라난 세포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으며, 멀라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암제인 비타민 C나 엽산을 쟁여드리는 게 좋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탈색된 부위에 광선을 켜어 주는 광선치료가 있다. 햇빛에는 많은 파장의 빛이 있는데 유해한 빛은 걸려내고 멀라난 세포를 자극에 필요한 광장을 선별해 조사해 주는 치료법이다.

최근 광선 치료보다 훨씬 강력하고 병변 부위에만 조사할 수 있는 엑시메이레이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광선 치료보다 3배 이상 빨리 색소를 차오르게 하고, 정상부위에는 죽지 않기 때문에 정상부위의 태닝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몸 전체에 퍼진 백반증에는 일일이 죽기가 쉽지 않아 이런 경우는 광선치료가 더 합리적이다.

〈상무 맑은 피부과원장〉

## 결함 많은 중국산 저가 오토바이 구입시 주의를

조그만 상점에서 배달을 하다 보니 자전거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사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국산이나 일본산보다 중국산이 훨씬 예쁘고 가격도 싸다. 가격으로만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값싼 중국산 스쿠터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이게 찾은 고장으로 하루가 멀다고 A/S를 받아야만 했다.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소위 마후라라고 하는 소음기에서 뺏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엔진까지 불이 붙어버렸다.

오토바이를 판 곳과 수입회사 쪽에 즉시 항의했지만 소비자 잘못이라며 무상수리도 안 해주고 교환도 못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소에 고발하고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고 따지자 그제서야 교환을 해줬다.

하지만, 교환한 오토바이도 만만치 않았다. 돈을 좀 아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게 너무나 깊은 욕심이었다는 후회가 들었다. 혹시 오토바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 구입하길 바란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 횡단보도 등 길거리 흡연 금지해야

며칠 전 아이와 서점에 가던 중 4거리 건널목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역겨운

흡연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7일간의 국민장, 비극적 승배 열에 의한 명백한 부파와 생명포기라는 비겁성의 은폐, 핵실험과 3개의 미사일 발사 따위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기괴한 시중의 유행어인 '진보의 삶 길'이란 말이 황석영 변절 시비로 확보될 것인가?”

이를 전 나는 경북 안동시에서 '현대에도 유학은 유효한가?'라는 강연을 하는 가운데 과거 왕조시대의 자연관인 '오역(五逆), 오사(五事), 황극(皇極)'의 경우를 들어 오늘날에도 유학이 유효하려면 오늘의 오역사건이 4대강 개발정책을 정면 반대해야한다고 못박고 나서 이어 책석을 보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안동시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이를 전 나는 경북 안동시에서 '현대에도 유학은 유효한가?'라는 강연을 하는 가운데 과거 왕조시대의 자연관인 '오역(五逆), 오사(五事), 황극(皇極)'의 경우를 들어 오늘날에도 유학이 유효하려면 오늘의 오역사건이 4대강 개발정책을 정면 반대해야한다고 못박고 나서 이어 책석을 보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안동시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 시 설

## 수도권 산단 농지 부담금 면제 뭘 의미하나

정부가 27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 280건을 한시 유예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미국 금융위기발(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의 한시적 규제완화나 폐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경제위기 극복의 뼈는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단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 내용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항 때문이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면제되지만 수도권은 전액 부과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결

국,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위한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제 수도권은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보전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으로써 산단조성 불이 일 것이다. 돈, 사람, 교통, 정보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공장부지마다 산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으니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에 완벽하게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지방이다. 수도권 규제를 한 상황에서도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빗장이 완전히 풀리면 지방경제는 거칠이 날 게 뻔하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혁신도시건설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지방은 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인가. 이 정부는 지방은 어떻게 되든 수도권만 잘 살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고 싶다.

## 경호원 거짓말에 놀아난 한심한 경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기존 경찰의 발표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이 투신 하던 당시 경호원 이모씨가 협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첨작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거정황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정토원에 들르지 않았다는 경호원의 진술과 달리 정토원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사찰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또 경호원이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업고 필요한 장소로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 대목이다. 추락환자에 대한 구급조치 요청을 모를 리 없는 경호원이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의혹들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의 부실수사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 無等 鼓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극심한 '돈맥경화'를 치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다 보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미국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최근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통화가)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